

02 초등 학부모용

연산이 느린 아이, 정말 문제인가

속도와 이해를 가르치는 법

- ◆ 이 자료는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 ◆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CONTENTS

01 숫자부터	2
02 무엇이 다른가	3
03 가르치는 법	4
04 그래서 무엇을	5
05 자주 묻는 것	6

무엇이 들어 있나

- ◆ 초등 사교육 참여율 **84.4%** — 고등학교(63%)보다 높습니다 (2025 사교육비조사)
- ◆ 연산이 느린 세 가지 까닭과 각각 **해야 할 일이 다른** 이유
- ◆ **집에서 십 분에 가르치는 법** — 시간을 안 재고 풀리기, 「왜 그렇게 했어?」 물어보기
- ◆ 속도를 재촉받은 아이에게 생기는 것 · 인쇄용 점검표 여덟 가지

01 · 숫자부터

느린 것과 모르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애는 연산이 느려요. 학습지를 더 시켜야 할까요.」

가장 자주 받는 초등 질문입니다. 그리고 대개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 느린 것과 모르는 것입니다. 이 둘은 처방이 정반대인데, 가르치 않고 양을 늘리는 것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초등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보시겠습니다. 국가데이터처와 교육부가 해마다 내는 사교육비 조사입니다.

학교급	사교육 참여율	1인당 월평균
초등학교	84.4%	43.3만 원
중학교	73%	46.1만 원
고등학교	63%	49.9만 원

초등학교의 참여율이 고등학교보다 높습니다. 84.4% 대 63%입니다. 가장 급하지 않은 시기에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요. 중3 수학에서 보통학력 이상이 49.6%, 기초학력 미달이 14.9%입니다. 초등에 많이 하는 것이 중등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두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물음이 바뀝니다. 「얼마나 시킬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시킬 것인가」입니다. 연산이 느린 아이에게 연산을 더 시키는 것이 답인지부터 보십시오.

출처: 국가데이터처·교육부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그리고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2026-06-23 발표). 두 숫자를 나란히 놓은 해석은 저희 판단입니다.

02 · 무엇이 다른가

느린 데는 세 가지 까닭이 있습니다

「연산이 느리다」는 한 가지 증상이 아닙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보는 까닭은 셋입니다. 각각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까닭	이런 모습	해야 할 것
안 외웠다	구구단·덧셈이 매번 세어서 나옵니다	외우는 것 — 양이 들립니다
이해가 없다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을 못 합니다	되돌아가기 — 양은 안 들립니다
조심스럽다	맞기는 다 맞습니다. 느릴 뿐입니다	대개 그냥 두어도 됩니다

셋째 경우가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이 오해받습니다

느린데 정확한 아이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는 성향입니다. 이 아이에게 속도를 재촉하면 정확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정확도는 회복이 느립니다.

중등 이후를 보면 이 성향이 불리하지만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중등 수학은 「왜 그렇게 되는가」를 묻습니다. 천천히 확인하는 습관이 그때 값을 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둘째입니다

이해 없이 절차만 외운 경우입니다. 이때는 속도도 느리고 정확도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첫째(안 외웠다)와 비슷해 보여서 더 시키는 것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커집니다. 이해가 없는 채로 양을 늘리면 「모르는 절차」가 몸에 굳습니다. 나중에 고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 구분은 저희 수업 경험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공시 통계로 뒷받침되는 분류가 아닙니다.

03 · 가르치는 법

집에서 십 분이면 됩니다

셋 중 어느 경우인지는 간단히 가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만 해 보십시오.

Q. 하나 — 시간을 재지 말고 풀려 보십시오

같은 문제를 시간 제한 없이 풀게 합니다.

다 맞으면 — 아는 것입니다. 속도만의 문제이거나 성향입니다. 이 경우 문제집을 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을 줘도 틀리면 —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양이 아니라 되돌아가기가 필요합니다.

Q. 둘 — 「왜 그렇게 했어?」를 물으십시오

답이 맞아도 물어보십시오. 설명이 나오면 아는 것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면 외운 것입니다.

외운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구구단처럼 외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해해야 할 것을 외운 경우입니다 — 받아올림, 분수의 나눗셈, 소수점 자리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을 「그냥」으로 답하면 되돌아가야 합니다. 중등에서 반드시 다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둘을 해 보시면 어느 경우인지 대개 그 자리에서 알립니다. 그리고 돈이 들지 않습니다.

「느린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초등 시험은 시간이 넉넉합니다. 느려서 손해를 보는 자리가 아직 없습니다.

속도가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중학교부터입니다. 중학교 수학 지필은 45분에 20문항 안팎이라 한 문제에 두 분 남짓입니다. 그러니 초6 무렵까지 속도를 맞추면 늦지 않습니다. 초3·초4에 속도로 조급해하실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이 장은 저희 수업 경험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중학교 지필 문항 수·시간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04 · 그래서 무엇을

차레와 점검표

차레	무엇을	왜
1	시간 없이 풀려 봅니다	속도인지 이해인지 갑니다
2	「왜 그렇게 했어?」를 물어봅니다	아는 것인지 외운 것인지
3	이해가 없으면 되돌아갑니다	양은 여기서 안 들립니다
4	이해가 있으면 그냥 듭니다	속도는 대개 따라옵니다

4번이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어 있는 아이에게 문제집을 더 주는 것은 그 시간을 다른 데 못 쓰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이에 대해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시간을 충분히 주면 맞히는가
- ☐ 틀리는 것이 계산 실수 인가 방법을 모르는 것 인가
- ☐ 「왜 그렇게 했어?」에 설명이 나오는가
- ☐ 구구단·기본 셈이 바로 나오는가 — 세어서 나오지 않는가
- ☐ 받아올림·받아내림을 설명할 수 있는가
- ☐ 분수를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 ☐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 맞히는가
- ☐ 문제를 풀 때 불안해하지 않는가

여덟 번째를 꼭 보십시오. 속도를 재촉받은 아이는 계산할 때 불안해합니다. 그 불안이 실수를 늘리고, 실수가 다시 재촉을 부릅니다. 이 고리를 끊는 것이 문제집 한 권보다 값집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산이 느리다는 이유만으로 학원을 늘리지 마십시오. 앞의 두 가지 확인은 집에서 십 분이면 하십니다. 그 결과가 「이해는 되는데 느리다」이면 하실 일이 거의 없습니다. 초등에서 속도로 앞서는 것은 중학교에서 대개 따라잡힙니다. 따라잡히지 않는 것은 이해와 습관입니다.

05 · 자주 묻는 것

초등 학부모님이 실제로 하시는 질문

Q. 연산 학습지를 계속 시켜야 하나요?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구구단이나 기본 셈을 자동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면 도움이 됩니다. 이건 반복해야 붙는 종류이고, 자동으로 되면 나중에 생각할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미 자동으로 되는 아이에게 계속 시키는 것은 얻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 시간에 문장으로 된 문제를 풀거나 책을 읽는 편이 중등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기준을 하나 드리면 — 같은 유형을 이미 맞히고 있으면 그만하셔도 됩니다. 틀리지 않는 것을 반복하는 것은 연습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Q. 또래보다 느린데 괜찮을까요?

초등에서의 속도 차이는 생각보다 뜻이 작습니다.

까닭이 둘입니다. 하나는 초등 시험이 시간을 넉넉히 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등부터 묻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중등 수학은 「왜 그렇게 되는가」를 묻는데, 빠른 것이 그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정말 보셔야 할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지난 학년 것을 지금 풀 수 있는가, 틀린 것을 다시 푸는가,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셋이 되면 느려도 괜찮습니다.

셋 가운데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의 문제입니다. 속도를 올리려 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손보십시오.

한 줄로 남기면

연산은 빠른가가 아니라 아는가로 보십시오. 시간을 주면 맞는 아이는 대개 괜찮습니다.

이 자료의 통계는 국가데이터처·교육부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2025)입니다. 연산에 관한 구분과 대응 방법은 저희 수업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며 아이마다 다릅니다. 이 자료는 성적 향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